

# 페퍼스, 5연패 탈출... '봄배구' 희망 살렸다

### 플세트 점전 끝 GS칼텍스에 3-2 승 5위 안착...9일 흥국생명과의 경기 '최다 득점 갱신' 테일러 33점·이한비 21점 폭발...구단 최다 9승 경신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33점을 폭발한 테일러를 앞세워 5연패를 끊어내고 5위 자리를 되찾았다.

페퍼스는 지난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Kixx를 제압하고 세트 스코어 3-2(33-25, 25-27, 26-24, 23-25, 15-12) 승을 거뒀다.

테일러가 팀 최다 득점(공격 성공률 41.79%)을 올렸고 이한비가 21득점(40.91%)으로 팀의 이번 시즌 아홉 번째 승리를 합작했다.

무려 8개의 블로킹을 잡아낸 장위가 16득점(37.5%), 박정아가 13득점(27.03%)으로 힘을 보탰다.

염어름형의 선취 득점으로 시작한 1세트, 페퍼스가 리드를 놓지 않고 승부를 이어갔다.

하지만 15-12에서 상대 유서연의 킷오픈과 블로킹, 실바의 득점이 터졌고 페퍼스는 4연속 실점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23-23에서 슴막히는 힘겨루기가 전개됐다. 페퍼스와 GS칼텍스는 엇치락뒤치락 점전을 벌

치면서 30-31까지 승부가 이어졌다. 장위가 실바의 백어택을 막아낸 뒤 서브에이스까지 해냈다. 그리고 박사랑의 디그-장위 토스를 이어받은 이한비가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으로 길고 긴 1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에서는 처음부터 점수 차가 3점 이상 벌어지지 않는 추격전이 계속됐다.

24-23에서 염어름형이 실바의 강력한 오픈에 3연속 블로킹에 실패하면서 페퍼스가 2세트를 내줬다.

상대의 서브 범실에 박정아의 연속득점이 더해져 3세트는 3-0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염어름형·테일러·이한비 등이 쏟아낸 공격·서브 범실에 더해 실바-유서연-뚜이가 코트 위를 날아다니면서 점수 차는 16-23까지 벌어졌다.

이후 5연속 득점으로 21-24로 격차를 좁힌 페퍼스는 상대 주포 실바가 안해진과 교체된 틈을 노려 장위의 속공과 블로킹으로 전세를 완전히 바꿨다.

마무리는 이한비가 담당했다. 이한비는 한다혜가 올려준 공으로 상대 투이의 블로킹을 뚫고 3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Kixx에 3-2승을 거두고 5연패를 끊어냈다. 득점에 성공한 후 환한 표정으로 세리머니를 펼치는 이한비. <KOVO 제공>

트를 가져왔다.

4세트 6-7에서 테일러의 킷오픈·오픈·이동공격과 장위의 블로킹 득점이 나왔다. 또 상대 권민지의

속공과 실바의 스파이크서브, 유서연의 킷오픈 등 상대의 뒷심에 막혀 순식간에 4세트를 내줬다.

5세트는 초반 3연속 득점을 해낸 GS칼텍스가 치고 나갔다.

하지만 테일러가 두 번의 백어택과 한 번의 시간차 공격을 성공시켰고, 박수빈이 2연속 서브 에이스로 추격하며 승부를 10-10 원점으로 돌렸다.

승리까지는 쉽지 않았다. 박연화의 서브가 아웃되면서 다시 리드를 내준 페퍼스는 김미연의 범실과 장위의 2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13-12를 만들었다. 그리고 GS칼텍스의 2연속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결국 페퍼스가 이닝의 승자가 됐다.

페퍼스는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한 테일러의 활약으로 20일 만에 연패 사슬을 끊어냈다.

구단 최다승 기록을 '9'로 변경한 페퍼스(9승 17패·승점 27)는 승점 2를 추가하면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9승 16패·승점 26)를 6위로 주저앉혔다.

이날 페퍼스의 팀 공격 성공률은 37.57%로 GS칼텍스의 41.55%에 못 미쳤지만, 팀 리시브 효율은 35.19%로 상대(24.35%)에 크게 앞서며 공수에서 안정적인 원팀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페퍼스는 9일 오후 4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선두'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마주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 개막 첫날부터 질주



### 남녀 1500m 준준결승·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등 아이스하키, 일본과 A조 3차전·컬링 믹스더블 경기도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막을 올리는 7일엔 우리나라의 메달밭으로 여겨지는 '세계 최강' 쇼트트랙 대표팀이 출격한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3일부터 아이스하키, 4일부터는 컬링 일정이 차례로 이어졌고, 이날 쇼트트랙도 경기를 시작한다.

대회 첫날엔 남녀 1500m 준준결승과 500m 예선, 1000m 예선,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이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쇼트트랙은 동계 스포츠 종합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다.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4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27개를 휩쓸어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겼다.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산 금메달 26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메달을 쓸어담았다.

이번 대회에서도 아시안게임(금29·은19·동19)과 올림픽(금12·은16·동9) 역대 메달 순위에서 한국에 이어 2위인 개최국 중국의 경쟁이 단연 관심을 끈다.

중국의 '흠뻑세' 등이 변수로 꼽히지만, 쇼트트

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걸린 9개의 금메달 중 6개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남자 선수로는 2023-2024시즌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을 필두로 장성우(화성시청), 김건우(스포츠포토), 김태성, 이정수(이상 서울시청), 박장혁(스포츠포토)이 나선다.

여자부엔 에이스 최민정과 지난 시즌 세계랭킹 1위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이소연(스포츠포토), 김건희(성남시청)가 출전한다.

아이스하키와 컬링 대표팀도 일정을 이어간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오후 1시 30분(한국 시간) 하얼빈체육대학 학생빙상장에서 일본과 A조 3차전을 벌인다.

김경애(강릉시청)와 성지훈(강원도청)이 조를 이뤄 출전한 컬링 믹스더블은 이날 4강 진출팀을 가리는 결정전과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개회식은 오후 9시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 총 222명(선수 148명·경기 임원 52명·본부 임원 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개회식에서 아이스하키의 이충민(블루밍턴 바이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를 기수로 앞세운다. /연합뉴스



6일 중국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르빈 B조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김경애가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 '탁구 레전드' 안재형 실업탁구연맹 회장 당선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짐을 짊어진 것 같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한국 탁구의 레전드 중 한 명으로 '골프 대디'로도 유명한 안재형

(60·사진) 전 대한항공 감독은 제23대 한국 실업탁구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후 인터뷰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안재형 신임 회장은 5일 실업탁구 수장으로 당선돼 앞으로 4년간 연맹을 이끈다.

안 신임 회장은 한국 탁구를 빛낸 양년의 스타 출신이다.

그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남자단체전 우승에 앞장섰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유남규 감독과 남자복식 동메달을 따냈다.

서울 올림픽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중국의 여자탁구 스타 자오즈민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핑퐁사랑' 끝에 결혼해 화제를 모기도 했다.

그는 여자실업팀 대한항공 감독을 역임했고 남녀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두루 거쳤다.

대한항공 감독을 그만둔 후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아들 안병훈의 골프백을 메고 따라다니는 캐디이자 최고의 조언자인 '골프 대디'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실업탁구연맹 회장으로 변신한 이유는 뭘까?

프로리그 활성화를 통한 한국 탁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22년 1월 탁구인들의 열원이었던 한국프로탁구리그(KTTL)의 프로리그 위원장을 맡아 2022시즌과 2023시즌을 이끌었다.

그러나 프로 리그는 코로나19 등 여파로 중단된 후 재개되지 못했고, 안재형 회장은 프로 활성화를 통해 한국 탁구 중흥의 마중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연합뉴스



지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2관왕을 차지한 대한민국 이재운 선수. /연합뉴스

## 스노보드 이재운, 슬로프스타일 출전...2관왕 도전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 이재운(수리고)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슬로프스타일에도 출전해 2관왕에 도전한다.

이재운은 이번 대회 남자 하프파이프 외에 슬로프스타일 출전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선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운은 대회 엔트리 최초 등록 때는 주 종목인 하프파이프에만 들어갔다가 최근 추가로 슬로프스타일 출전을 신청했다.

2006년생인 이재운은 2023년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역대 최연소 기록(16세 10개월)으로 우승,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을 금메달로 장식한 선수다.

그는 하프파이프를 주 종목으로 삼지만, 슬로프스타일에서도 세계 수준에서 경쟁할 만한 기량을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열린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남자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던 이재운은 생애 첫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정조준하게 됐다.

이번 대회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경기는 8일 헤이룽장성 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리며, 하프파이프는 12일 예선을 거쳐 13일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